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 서울시 4대 지천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2. 도시수변공간의 시대적 관점
3. 서울시 4대 지천의 수변여가공간 현황
4. 4대 지천 수변여가공간의 문제점
5. 수변공간의 시민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1. 들어가는 말

-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늘어난 주말의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잦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교통혼잡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도시에서, 특히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이 요구됨.
-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생활권의 수변공간이 많은 잠재력을 지닌 시민여가공간으로 부각되지만, 제외지(堤外地)에 국한된 일률적인 조성은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를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수변여가공간의 창출이 필요함.

2. 도시수변공간의 시대적 관점

○ 문화시대의 도시수변공간

- 산업화시대에 교역 및 물자운송의 최적지였던 수변공간은 탈산업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동화와 슬럼화로 도시문제의 핵심지역이 됨.
-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산업이전적지에 대해 문화시대에 적합한 탈산업적 기능이 요구됨. 문화시대에서는 근대의 산업도시에서 요구되는 물리적, 양적 효율성보다도 감성적, 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되므로, 기존의 흔적은 고유한 장소성으로 새로운 문화유산

지로 부각될 수 있고, 산업시설물도 근대도시의 주체가 되는 건축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

-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했던 근대도시계획에서 개발의 경계가 되었던 수변공간은 오히려 잠재력이 많은 도시의 시민공원임. 특히 문화시대는 노동집약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시민여가공간이 도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급속한 도시팽창기에 건설된 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주변지역과 단절되었던 수변공간은 시민의 휴식처로 접근성을 회복하려는 추세임.
- 수변공간은 물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서정성에 의해 다양한 문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소임. 인간의 친수감정과 아름다운 경관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문화이벤트가 매우 효과적인 장소임.

○ 시민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

- 주5일 근무제 시행이후,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지만,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TV시청이나 휴식 등 정적이고 소극적 형태의 활동이 지속되어 여가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
- 경제적 이유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공간 및 시설과 같은 외적 여가자원의 부족이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여가가 일상생활화 되는 시기에는 생활권 여가를 위한 이용자 지향적 자원개발이 요구됨.
- 여가를 위한 공간 요구와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시공간에서는 만족할만한 요소가 불충분하여 잠재력있는 수변공간이 주목을 받음.
-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공간은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며, 또 다양한 시설을 갖추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하여 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서울시 4대 지천의 수변여가공간 현황

○ 중랑천

- 중소규모의 녹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있으며 하천을 따라 놓인 철도에 의해 분절된 강변지역도 있음.
-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60%)을 차지하고, 상류부분은 아파트가, 하류부분은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음. 또한 청계천과 만나는 부분에 산업 및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 고수부지는 대체적으로 평탄하나 일부지역은 계단모양임. 최근 중랑천 뚝방 일부에 산책 겸용의 자전거도로가 완공됨.
-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하천접근이 어려워 교량형식 또는 통로방식의 접근로가 설치됨.
-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수변공간으로, 평탄한 고수부지는 자전거타기에 매우 적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
- 제방길을 따라 개나리꽃, 벚꽃, 단풍, 낙엽길이 있어 중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함.
- 자치구 여가프로그램으로 '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도봉구), 직장인 웰빙헬스 및 자전거프로그램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동대문구)과 성동구의 4강기원 월드컵 기마 퍼레이드, 청계천 및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걷기대회, 인라인 및 게이트볼 강습 등이 있고, 서울시는 야생화 체험교실, 청계천 생태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탄천

- 상류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기에 녹지비율(38%)이 가장 높고, 아파트(18.7%), 상업(16.6%), 주택(23.2%)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 잠실운동장, 농산물 도매시장, 탄천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시설과 우수지, 하수처리장, 배수 펌프장 등 다수의 수해방지시설이 있음.
- 고수부지는 하천변에 면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한강 합류부에 주차장, 강남면허 시험장, 자동차극장 등 차량관련시설이 있음. 그 외 고수부지는 자연생태지역으로 유지됨.
- 양측이 고가도로와 뚝방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음.
-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여가프로그램은 없음.
- 다만 송파구에서 환경의 달에 "자전거를 타면 지구를 살려요"라는 주제의 탄천 자전거도로 이용 등의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제1회 아마추어 카트대회가 개최되었음.

○ 안양천

- 일본의 대륙침략 목적으로 운송체계가 발달하여 공업지역(21%)이 우세하고, 목동단지개발 이후로 아파트(29%)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 안양시와 경계지역인 상류부분은 철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로 접근성이 가장 불량하며, 공업시설이 밀집됨.
- 고수부 양안 모두 제방이 콘크리트 호안으로 축조되어 있고, 우안부는 제방에 옹벽을 설치하였고, 좌안부는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음. 일부 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고수부지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저수부는 콘크리트호안으로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하천수질이 나쁨.
- 고수부지는 대부분 체육시설, 주차장,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인접구별로 여가시설의 차이가 많이 나타남.
- 자치구 여가프로그램으로는 금천구에 에어로빅 프로그램, 구로구에 아침건강 에어로빅 생활체육 프로그램, 조류관찰 프로그램, 생태체험 프로그램, 양천구에 안양천 문화재, 가족걷기대회, 여성백일장, 학생사생·백일장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3.1절마라톤대회, 어린이 축구교실, 인라인 강습, 전국 청소년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 생태체험 프로그램, 영등포구에 게이트볼, 자전거, 인라인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 홍제천

- 하천주변현황을 보면 녹지(7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 다세대주택(20%)으로 아파트(3.6%) 비중이 적음. 상류측은 산악지대로 근린공원과 더불어 호텔, 사찰, 학교 등이 있고, 하류측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음.
- 일부의 하천구간은 복개되었으나, 최근에 복원공사 중에 있으며,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차집관로가 하천양안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수부지 활용도가 매우 낮음.
- 북부간선도로가 하천중앙을 관통하여 경관이 불량함.
- 상류부에만 약간의 물이 고여있는 건천으로 수변여가공간이라기 보다는 고가차도에 의해 생긴 그늘막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한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공사 중에 있음.
- 홍제천은 특별한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러 있음.
- 자치구 여가프로그램으로는 서대문구에 홍제천 문화행사(홍제천 사진전시, 주민노래자랑, 풍물놀이, 중창단 공연 등), 청소년 대상의 사생대회 등이 있음.

4. 4대 지천 수변여가공간의 문제점

- 산업화 후기에 진행된 주차장 및 체육공원화
 - 1980년대 이후 각 하천구역은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설치, 체육공원 조성으로 대변되는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됨.
 - 생활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시대에 들어서면서 하천은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으나, 현재의 수변공간은 양적인 팽창 이후 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하천별 특징이 없는 획일화된 수변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 4대 지천별 특징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체육 및 편의시설로만 조성되고, 현행 프로그램도 체육프로그램에 치중됨.
 - 4대 지천은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수변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임.
 - 생활권 휴식공간의 역할과 동시에 좀더 질 높은 체험 및 다양한 여가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지천별 특성을 살리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주변지역과 하천과의 단절
 - 철도 혹은 자동차전용도로가 하천변을 따라 건설되거나 하천 중앙을 관통하면서 주변지역과 단절된 양상임.
 - 하천변의 대규모 산업시설들로 인해 주거지역에서 하천으로의 접근에 심리적 거리감이 있음.
- 법규 및 제도 정비와 관리청간의 협조체계 필요
 - 제방을 경계로 법의 범위가 달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됨.
 - 여가 프로그램 또한 하천의 인접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직적인 수변 여가공간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하천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제도적 정비 및 관리청간 협조체계의 법적 마련이 필요함.

○ 하천의 오염

- 현재 4대 지천의 수변여가활동은 둔치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대부분이며, 하천의 오염으로 하천을 이용한 여가활동은 거의 없고, 탁한 물과 악취 등으로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감소됨.
- 양재천 정화사업과 같은 하천정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지역주민의 인식

- 하천주변 지역주민들의 수변공간에 대한 잠재력 인식과 일상생활속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
- 행정적 측면의 지원 하에 인간과 자연이 생활 속에서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5. 수변공간의 시민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

- 수변공간이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특성 및 시민수요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함.
- 현재 인접 자치구별로 수변공간 재정비와 여가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고 수변공간의 관할경계가 모호하므로, 바람직한 수변여가공간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특성별 유형연구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자치구가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하는 시민의 연령·성별, 시간대, 주변시설, 여가시설 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공간 및 시설 확충

- 제외지에 국한된 여가활동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성에 의해 제한적이므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여가활동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등과 같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수변공간과 연계함으로써, 여가공간 및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음.

- 진행 중인 산업시설 관련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장소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킹 필요
 - 최근에 하수처리장 공원화, 유희철도부지 활용, 우수지 생태복원 등 도시의 산업화 또는 근대화과 관련된 수변공간에 대한 재활용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시대적 도시흔적의 가치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산업시설물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선유도 공원처럼 그 고유의 장소성으로 시민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
 - 하천을 따라 발달한 산업시설물들이 문화적 기능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수변여가활동을 유도하는 문화네트워킹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함.

- 수변공간의 접근성과 주변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전용도로, 전철 등 산업도시구조에 대한 장기적 개선 필요
 - 도시의 산업화와 팽창에 의해 구축된 교통체계가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수변공간의 시민여가활동을 축소시켰음.
 - 탈산업화시기를 맞이한 많은 도시들은 수변여가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도로화, 도로지하화, 복개 등 근대도시구조의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계획은 주변지역과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계획이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하에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백승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74
smbaek@sdi.re.kr